

안산·이승윤 1차 관문 통과...태극마크 향해 순항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안산 여자부 2위·이승윤 남자부 4위 을 광주여대 입학 오예진 3위 등 광주·전남 남녀궁사 6명 통과

광주·전남 궁사 6명이 국가대표 선발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과 2021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3관왕 이승윤(남구정)은 23일 양궁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여자부 2위, 남자부 4위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오예진(광주여대), 이은경(순천시청), 최미선(순천시청), 이진용(조선대)도 1차 관문을 넘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향해 순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4일간 열린 1~3회전 배점 합산으로 순위를 가린 결과 이날까지 추려진 남녀 각각 16명에 포함됐다.

남자부에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인방'인 김우진(청주시청·125점)·김제덕(경북일고·122점)·오진혁(현대제철·114점)이 1~3위에 포진한 가운데 이승윤(106점)과 이진용(83점)이 각각 4, 10위로 합류했다.

여자부는 '도쿄올림픽 주역' 강재영(현대모비스·119점), 안산(109점)이 1, 2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광주여대에 입학한 오예진(105점)이 3위에 올랐고 2018 자카르타 팔렐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은경(순천시청·83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70점)이 각각 11위와 16위에 자리했다.

이날 1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궁사 32명은 24~26일(토너먼트, 리그전, 15발 기록경기)을 거쳐 남녀 각각 8명이 2022년 양궁 국가대표로 확정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남녀 1~8위 선수들은 내달 4~8일(예선), 17~21일(원주) 2차례 순위 평가전을 치러 상위 1~3위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쥘다. 이들은 아시안 게임에 앞서 오는 5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인 양궁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 기량을 최종 점검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최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여자테니스 세계 1위 바티, 25세에 벌써 은퇴?

"이제 다른 꿈 찾아야 할 때" 인스타그램 통해 은퇴 발표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 1위 에슬리 바티(호주)가 만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충격의 은퇴 선언을 했다.

바티는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테니스가 내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며 떠난다"고 은퇴를 발표했다.

바티는 여자 테니스 최정상에 올라있는 선수다.

2019년 프랑스오픈에서 첫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윌빙던에서 우승했고, 올해 1월에는 호주인으로 44년 만에 호주오픈에서 우승했다.

메이저 대회의 잔디코트(윌빙던), 클레이코트(프랑스오픈), 하드코트(호주오픈·US오픈)에서 고루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현역 선수는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와 바티, 둘 뿐이다.

바티는 나옴이 오사카(일본)와 함께 윌리엄스의 뒤를 이을 '차세대 테니스 여제'로 손꼽혔다.

호주오픈 우승 뒤에는 호주 '국민영웅'으로 떠올랐다.



올해 호주오픈테니스에서 우승한 바티. /연합뉴스

호주 신문 '디 에이지'에 따르면 올해 테니스를 배우는 이 나라 어린이가 지난해에 비해 30% 늘었다. 바티의 우승 영향이다.

5월 열린 프랑스오픈에서 개인 통산 4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됐던 바티는, 그러나 돌연 라켓을 던졌다.

바티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터뷰 형식의 영상에서 "나에게 성공이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으며, 육체적으로 더 줄 것이 없다. 이 아름다운 테니스에 모든 것을 바친 나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테니스에서 물러나서 다른 모든 꿈을 좇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티는 전에도 '번아웃'을 이유로 테니스를 잠시 그만 둔 적이 있다.

17살인 2013년에 호주오픈, 윌빙던, US오픈 여자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은 바티는 2014년 말에 갑자기 테니스를 그만두고 호주의 프로 크리켓팀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바티는 2020년에는 호주의 지역 골프 대회에서 우승해 '만능 스포츠인'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바티는 "테니스에서 은퇴한다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전에도 테니스를 떠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바티의 은퇴 선언에 많은 테니스인이 아쉬워했다. 전 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는 SNS에 "이제 뭘 할 거야?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박미희 감독, 흥국생명과의 결별

광주여성 출신...8년간 팀 이끌어 2018-2019시즌 통합우승도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을 8년 동안 이끌었던 박미희(59·사진) 감독이 팀을 떠난다.

광주여성 출신인 박 감독은 23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흥국생명을 떠나게 됐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자회견에 알렸다.

2014-2015시즌 흥국생명 사령탑에 오른 박 감독은 2016-2017시즌 팀을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2018-2019 시즌엔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통합우승을 이끈 여성 지도자가 됐다.

부임 기간 흥국생명을 5차례 봄 배구에 진출시키며 지휘력을 인정받았지만, 2020-2021시즌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 이후로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 시즌 합류했던 김연경까지 팀을 떠나면서 올 시즌에는 정윤주와 박혜진 등 어린 선수들을 주로 기용하며 팀 리빌딩에 힘썼다.

박 감독은 정규리그에서만 240경기를 치러 125승 115패로 승률 52.08%를 기록했다.

승수로만 따지면 여자부 지도자 중에서는 이정철(157승)과 고(故) 황현주(151승) 감독에 이어 3번째 기록이다.

해남에서 태어난 박 감독은 광주여성 3학년이던



1982년 국가대표로 발탁돼 이듬해 미도파에 입단했고 1985년 대통령배 우승을 시작으로 미도파 독주시대를 이끌었다. ▲1979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1982년 제1회 대통령배 MVP ▲1983년 여자실업 배구 신인상 ▲1988년 서울올림픽 개인기록 종합 1위를 기록,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나달 갈비뼈 부상...최대 6주간 경기 결장

올해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사진)이 갈비뼈를 다쳐 최대 6주간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나달은 2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갈비뼈 부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땀 수 없다"며 "시즌 출발이 좋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호주오픈을 제패한 나달은 개막 후 20연승을 내달렸으나 지난주 끝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 결승에서 테일러 프리츠(13위·미국)에게 0

-2(3-6 6-7 5-7)로 저 연승 행진이 끊겼다.

특히 나달은 프리츠와 결승 도중 두 차례나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르고, 호흡에 다소 불편함을 겪는 등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귀국해 정밀 검사를 받은 나달은 왼쪽 갈비뼈에 피로 골절 증상이 발견됐다.

이로써 나달은 5월 말 개막 예정인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나달은 회복이 빠를 경우 5월 초 개막하는 ATP 투어 마드리드오픈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뜨거운 피
- 2관 뜨거운 피
- 3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더 배트맨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뜨거운 피
-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문물
- 7관 씨네캐슬 스펀서, 메리 미, 언차티드
- 8관 씨네캐슬 리더링 러브, 벨파스트, 에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